시민을 위한 집회·시위 안내서

말 좀 해도 될까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죠. 극히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그 일이 내가 사는 공동체에 큰 충격과 영향을 주는 일이라 생각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걱정되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런 일을 지나쳐 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내가 비록 평범한 시민에 불과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미래의 아이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란 거창한 게 아니랍니다. 하나씩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들 사이의 소통과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민주주의는 시작됩니다. 대통령이나 관료, 교수같이 으리으리한 사람들만이 발언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래알 같은 개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향해 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2016년 강남역, 구의역 참사 애도 모임에서, 그해 겨울을 달군 촛불집회에서 목격했습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이 사회를 향해 발언했을 때, 큰 파도와 같이 몰아쳐 사회로부터 응답을 받는 경험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은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큰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사회 평범한 시민들에게 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잡이입니다.

기존의 안내서가 집회 및 시위에만 맞춰져 있다면, 이 책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평범한 시민들의 고민과 모색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 안내서가 어딘가 있을 미래의 시민영웅들에게 하나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며,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시민을 위한 집회·시위 안내서

말 좀 해도 될까요?

01. 직장인 정나영 씨, 불의에 대한 '목소리 내기'를 처음 고민하다 04

02. 한국, 그리고 세계의 '목소리 내기'는 09

03. 나영 씨, '평범한 시민영웅'에게 조언을 구하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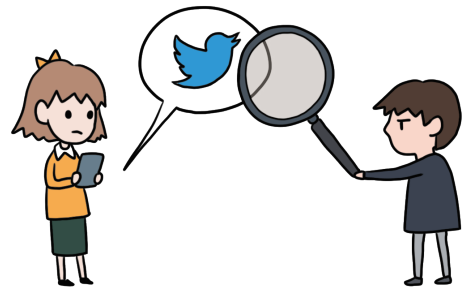
04.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38

※ 별첨자료 6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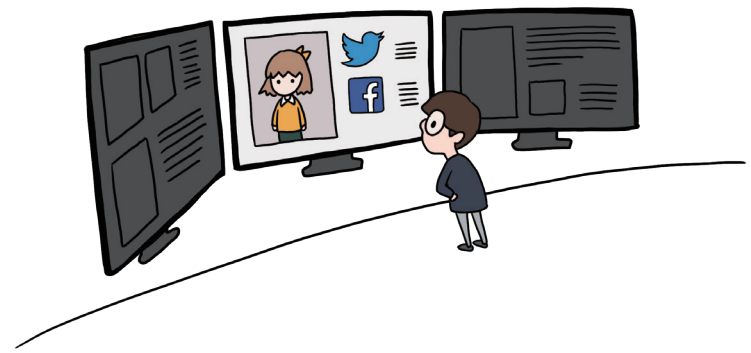
직장인 정나영 씨, 불의에 대한 '목소리 내기'를 처음 고민하다

직장인 정나영 씨는 최근 트위터에 짧은 글을 한 줄 남겼다. "여성혐오에 반대한다."라는 평범하고 단순한 한 마디 말. 그런데 회사 인사팀은 이튿날 나영 씨를 불렀다.



인사팀장은 나영 씨의 트윗을 출력해 보여주며 "한 번만 더 이런 글을 남기면 경고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협박까지 했다.

나영 씨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왔지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나영 씨는 회사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알린 적이 없었다. 회사 인사팀은 어떻게 나영 씨의 트위터 계정을 알게 된 걸까?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예고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영 씨는 자신의 이런 생각에 확신이 없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어쩌면 회사 인사팀의 경고가 옳은 게 아닐까? 나영 씨는 트위터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다.

그런데 뜻밖에 나영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른바 '직원 사찰'. 회사의 사생활 검열에 대한 불만이 활자로 나열된 것을 보며 나영 씨는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문득 나영 씨는 이런 목소리를 모으고 모아 공론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나영 씨의 후배, 그 후배의 후배가 똑같이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나영 씨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 나갔다가 여러 사람이 모여 구호를 외치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나영 씨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집회도, 시위도 해본 적이 없던 나영 씨에게는 무척 막막한 일이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 목소리는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할까?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볼까? 활동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모아야 할까? 돈을 모은 뒤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걸까? 국회에 관련 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원을 해 볼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집회·시위도 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집회·시위를 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나영 씨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집회·시위를 하려면 마이크, 트럭 등 물품을 빌릴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물품은 어디서 빌리는 걸까?

집회·시위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활동이 끝난 후 이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만들어 다음에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표현해본 적이 없던 나영 씨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것 자체도 고민이었다. 누구에게 이런 방법을 물어봐야 할까. 나영 씨는 사무실 책상과 책상을 가로지르는 파티션을 넘어 주변을 흘끗 돌아봤다. 도움 될 사람은 아무래도 없어 보였다. 게다가 회사에서 조언을 구하다가 자칫 인사팀의 귀에 들어가면 그것 또한 난감하다.

한참 동안 볼펜만 따각거리던 나영 씨는 일단 마음을 다잡고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래도 인터넷 검색만은 자신 있는 분야, 무엇이든 검색부터 해 보면 일단 길은 열릴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나영 씨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다. 키워드는 '정치적 의사 표현'.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부터 시작해, 광장을 점거해 일상 생활까지 하는 '오큐파이(Occupy)'까지, 막연하게 '집회·시위'만 생각하고 있던 나영 씨로서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넓고 다양한 세계가 눈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02

한국, 그리고 세계의 '목소리 내기'는

불통의 경찰버스
평화의 '꽃 벽'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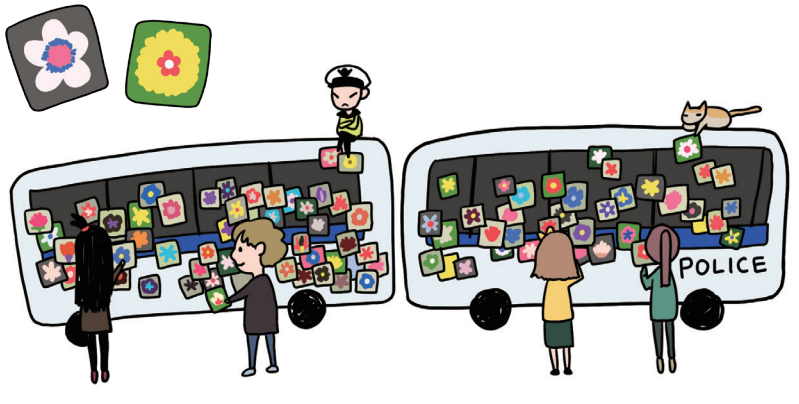
2016년 11월. '박근혜 하야'를 외친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또다시 경찰버스가 등장했다. "경찰버스로 광장을 둘러싸 통행조차 금지하는 것은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경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법원도 청와대 가까운 곳까지 시민들의 행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경찰은 오히려 차 벽을 더 멀리 배치하면서 불통(不通)의 행보에 나섰다.

경찰의 '불통'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은 '꽃 벽'이었다. 시민들이 손수 마련해온 꽃 스티커를 전경 차량에 붙이자, 불통의 차 벽은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했다. 경찰버스를 부수기보단 '차 벽'을 '꽃 벽'으로 만들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의 마음에 또다시 불통으로 대답했다. 경찰버스는 꽃 스티커가 붙은 모습 그대로 그다음 집회에 또 등장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 맞대응했다. 시민의 광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자발적인 항의의 표시였다. 경찰버스를 장식한 여러 종류의 스티커 외에도 시민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개성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 축제와 저항의 장으로 탈바꿈한 겨울의 광장을 수놓았다.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각자의 깃발을 들며 저마다 집회로 향했다. '장수풍뎅이 연구회', 페미니스트로서 주체적인 의사 표시를 하겠다는 '헬페미' 등 깃발이 광장에 등장했다. 또 '안남대학교 리볼버학과'라는 깃발도 있었다. "박근혜를 다락방에 있



는 리볼버로 쏘고 싶다."는 트윗 한 줄에 직접 트윗 작성자를 찾아간 경찰의 '과잉 대응'을 풍자한 깃발이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올라온 70년생 개띠 시민들은 "김진태 개소리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을 종횡무진 누볐다. 가족 단위로 깃발을 만들어 온 사람들도 있었다. '치킨교' 깃발을 든 아버지는 아직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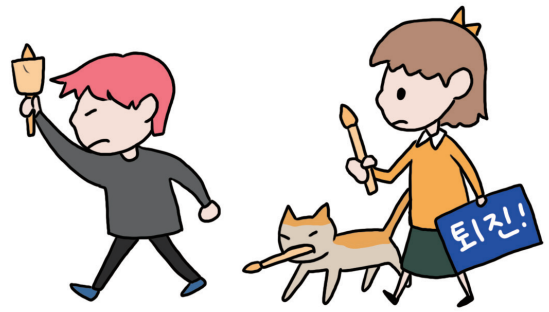
시민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른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방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음악을 하는 시민들은 프랑스 혁명을 다룬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삽입곡 '민중의 노래'를 불렀다. 서예가는 현 시국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광장에 내걸었다. 각 지역 새누리당사는 새 현판을 선사 받았다. 현판의 내용은 '공범이당', '정계 은퇴당' 등 모두 현 시국을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2016년 말과 2017년 초를 장식한 이 모든 집회·시위에 언론은 "이례적인 대규모 평화집회"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이전만큼 강도 높은 진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례적인 평화집회'가 이어지는 도중에도 경찰은 여전히 국가 공권력 폭력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수가 줄어드는 한밤중이면 포위망을 좁혀 시민들을 연행했다. 지방에서 트랙터를 타고 올라온 농민들은 경찰의 벽에 가로막혀 서울 관문을 앞에 두고 노숙을 해야 했다.

시민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경찰의 차별적인 대응에 맞대응했다. 자정을 넘은 새벽, 청와대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경찰 앞에서 시민들은 집회·시위 선도 차량을 DJ 트럭으로 바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노숙하는 농민들의 옆에서 함께 추운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도 있었다.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화문으로 나갔어요. 한 번도 집회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교 동아리 친구랑 초 하나씩 준비해서 광화문에 나갔어요. 친구는 집에 양초가 없다고 프레그런스 캔들을 갖고 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뭘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나 친구들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는 자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피켓 같은 건 미리 준비해온 단체에서 나눠줬어요. 이런 방식으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굉장히 뿌듯했어요."(서울 지역 대학생 정현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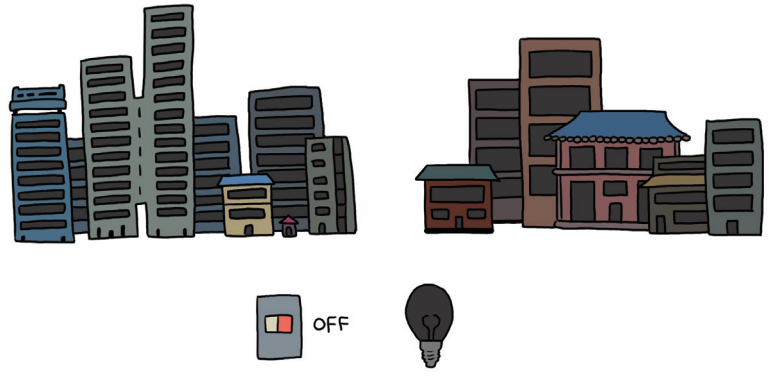


일상 속으로 스며든 정치적 의사 표현들

2016년 말 그리고 2017년 초. 전국 각지에는 집회·시위의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박근혜 하야' 주장이 등장했다. 광장에 내걸린 '깃발'의 물결은 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졌다.

광장으로 나갈 수 없는 시민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직접 제작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단체로 현수막을 맞춰 곳곳에 내걸기도 했다.

가수 이승환 씨 등 유명인들도 현수막 게시에 동참했다. 이승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드림팩토리' 건물 전면에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건물은 이승환 씨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이승환 씨 측의 해석이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시민 누군가가 이 현수막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본인 건물에 현수막을 거는 것도 불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승환 씨는 잠깐 현수막을 내렸다. 이후 이승환씨는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더 크고 분명하게 만든 현수막을 건물 전면에 다시 내걸었다.



많은 자영업자는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박근혜 하야를 내건 마케팅을 동원했다. '박ㄹ(근)혜 구속되는 날 음식, 주류 공짜', '박근혜 하야 당일 전 객실 무료', '밤 장사 하느라 촛불집회 참석 못 해 정말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일부터 소주 무제한 무료 제공' 등 공약을 내건 현수막이 여러 영업장에 내걸렸다.

일제 소등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날 저녁,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사는 아파트, 일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8시부터 약 1분가량 불을 꺼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저녁 7시부터 소등이 있던 날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세월호 7시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은 소등이다.

광장에서 시작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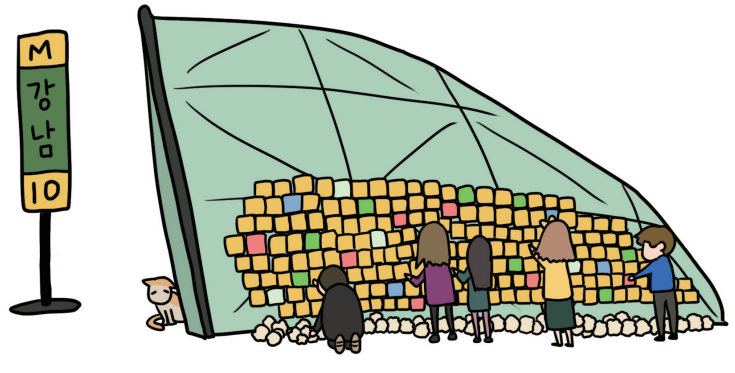
구의역 승강장,
그리고 강남역 10번 출구

“비정규직은 혼자 와서 죽었고 정규직은 셋이 와서 포스트잇을 뗀다”

“아가 라면 먹지 말고 고깃국에 밥 한 그릇 말아먹어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3분 청춘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문제는 매뉴얼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외주화, 최저가 입찰, 하청, 재하청… 시스템은 매뉴얼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 포스트잇의 형태로 등장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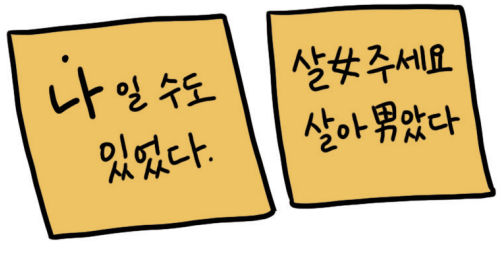


2016년 5월 28일, 20세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구의역에서 참변을 당했다. 지하철 1~4호선 49개 역, 수백 개에 이르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직원 4명이 맡아 진행하다 생긴 참변이었다.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 측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참변을 당한 청년에게 책임을 떠밀었다. 외주화, 하청 등 대기업의 책임 회피 전략으로 그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시민들은 서울메트로의 책임 회피에 분노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저마다 구의역으로 나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추모, 서울메트로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로 인해 벌어지는 참사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색색의 포스트잇으로 남겼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비정규직 청년을 위해 고깃국이나 밥을 놓아두고 가는 사람, 국화를 놓아두어 추모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벼운 실랑이도 벌어졌다. 포스트잇이 철거되자 시민들은 “비정규직은 혼자 와서 죽었고 정규직은 셋이 와서 포스트잇을 뗀다”는 내용의 포스트잇으로 대답했다.

추모 현장에 포스트잇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구의역 참사보다 앞선 2016년 5월 18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에도 무수히 많은 포스트잇이 붙었다. 서울 서초구 한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을 추모하기 위한 물결이었다.

포스트잇이 붙기 전날,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그 남성이 경찰에 한 말은 “사회생활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강남역 10번 출구로 향했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도 속속 등장했다. SNS를 통해 모인 시민들은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직접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여성혐오’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이어나가며 이야기를 만들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이제는 화장실을 갈 때 칼을 든 남자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됐다.”라며 “여성혐오를 없애자는 말은 남녀를 가르는 말이 아니라 젠더를 둘러싼 억압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일종의 선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밤길을 걷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치마를 입지만,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살女주세요. 살아男았다.”

“여자라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남은 자들의 몫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분절된 개인의 목소리가 시위에서 결집하다

2016년은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온 한 해였다. 서로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던 여성들이 넥슨의 김자연 성우 교체 반대, 생리대 가격 인하, 낙태죄 폐지 등 주장을 모으기 위해 거리로, 거리로 나왔다.

이 모든 시위의 시작은 ‘온라인’이었다. 2016년 7월, 넥슨의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의 캐릭터 목소리 연기를 맡았던 성우 김자연 씨가 배역에서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Girls Do Not Need A Prince(여성들은 왕자가 필요없다)”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였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는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낙태를 포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공간에는 항의가 빗발쳤다. 분노한 여성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법으로, 손에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와 분절된 주장을 한 공간에 모으는 것을 선택했다. SNS 페이지 등을 기반으로 집회 공지가 이뤄졌다. SNS 페이지를 보고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은 저마다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여혐주의 넥슨 불매, 여캐 벗겨 돈 벌고서 협박으로 입 막기냐, 티셔츠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형법상 낙태죄는 의료인과 임신중절 여성에게만 임신 중절의 책임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출산율정책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는 것은 여성의 몸을 국민 재생산 도구나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흰님들,,,, 기부금,,, 밧으시고,,,, 에어컨 펑펑,,, 틀고 일하세유,,,@-->----”

“하... 저 최애랑 결혼한 지 여섯 달째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분절된 개인의 목소리는 물질적인 후원으로도 모였다. 2016년 말, 한국여성의전화 후원 번호에 ‘이상한’ 문자메시지가 쇄도하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한 여성혐오 트위터 이용자가 ‘한국여성의전화 문자후원 인증샷은 기부 피싱 범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증샷을 통해 공개된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건당 3,000원씩 자동으로 후원금이 결제되는데, 한국여성의전화가 이런 방식으로 결제를 ‘불법’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냐는 말이었다. 이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분노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너도나도 자발적으로 ‘피싱’에 뛰어들었다.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국여성의전화를 후원하고 이를 SNS로 인증하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 벌어졌다.

경기 성남시 넥슨 본사 사옥 앞에서 벌어진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모두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의 간식들이 후원 물품으로 들어왔다. 어떤 여성은 커피를 만드는 차량까지 보내 집회를 후원하기도 했다.

일상으로 스며든 정치적 의사 표현이 일상이 되다

2015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인간 대신 여러 명의 유령이 거리를 배회했다. 유령의 정체는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인간 형상이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대신 3차원 영상이 시위자로 나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시민 대신 3차원 영상이 시위자로 나온 이유는 하나, 공공기관 근처에서 집회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스페인 당국의 조처 때문이었다. 스페인 의회는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회와 관공서 등 공공기관 근처에서 시위할 경우 주최자에게 최대 60만 유로(약 7억 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시민들은 법의 적용을 직접 받는 ‘살아 있는 인간’ 대신 홀로그램을 내보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외치며 스페인 당국의 조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한국에서 홀로그램 시위가 등장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한국 법 역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바로 앞에서 홀로그램을 등장시켜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대신했다.

앰네스티는 이번 시위를 위해 120명의 시민과 함께 크로마키 촬영을 진행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음성, 문자메시지 180여 건을 모아 이날 홀로그램 집회를 위해 사용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이 일상으로 스며든 것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가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던 때도 있었다.

미국 뉴욕주 월가에서 진행된 '오큐파이(Occupy)' 시위, 프랑스 파리 공화국 광장에서 진행된 '뉘드부(Nuit debout·밤샘시위)'에서 시민들은 어떤 한 공간을 점거한 뒤 그곳에서 먹고, 자고, 살며 평범한 일상을 누려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오큐파이 시위는 미국 월가에서 촉발된 금융 위기로 경제 불안이 거세지고 부조리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자 문제의 근원지를 '점거' 해버린 시위다.

또 뉘드부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부의 친기업적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광장을 점거하고 아예 새로운 소규모 정치조직을 꾸렸다. 기성 정치 체제와 달리 이 시위에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몇 개의 위원회로 구성된 수평적인 조직들과 일반 시민들에 의한 시민 의회가 토론, 의견 교환을 통해 집회의 방향을 대신 정했다. 의사소통 방식도 기성 사회와는 달랐다. 시민들은 특정한 몸짓을 이용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체적인 달력까지 이용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스콰앗(Squat·점거) 운동은 아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유권' 체제를 전면 부정한다. 스콰앗 예술가들은 도심 내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사무실, 건물을 점거해 예술적인 창작 활동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유권을 내세우며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남아 있는 도시 내의 빈 공간을, 그 순간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 스콰앗 예술가들은 공간을 점거함으로써 이를 직접 표현하고 있다.

03

나영 씨,
‘평범한 시민영웅’에게
조언을 구하다

Vol 1. 트위터 대모에게 묻다

나영 씨는 이런저런, 국내외 사례를 모두 찾아보고도 여전히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서 경험자를 찾는 것! 나영 씨는 예전에 집회나 시위를 주최해본 적이 있던 사람을 SNS에서 조심조심 찾아보았다.

나영 씨는 자신이 ‘소울 @SSoul201913’이라는 트위터 이용자와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 상태란 것을 알았다. 이분, 최근 ‘강남역 10번 출구’ 관련 집회 주최자 중 한 분이다. 조금 주저주저하면서도 나영 씨는 ‘소울’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반갑게도 답장은 곧바로 왔다.

처음에 어떻게 집회를 시작할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페미니즘 책 소모임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페미니즘적 이슈가 있을 때 '뭐라도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예전에 '데이트 폭력'이 한창 이슈일 때 그 친구들과 성명이라도 내려다가 못 냈던 게 아쉬웠거든요. 저렇게 많은 여성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직접 하게 하자, 자유발언대라도 만들어보자고 한 거예요.

왜 '자유발언대'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해쉬태그가 돌 정도로 사람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자기 이야기로 생각하고, 추모하고, 헌화하고 했잖아요. 이 경험은 각자의 불행 같은 거였지,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구조적인 문제로 조명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을 공론의 장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집회 신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안 했어요. 그래도 경찰들은 되게 많았어요. 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 여자애들 다 어떻게 하러 간다." 이런 인증도 많았었고 해서. 세 번째부터 집회신고를 하게 됐는데, 채증 같은 것 때문에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행정적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마이크랑 앰프는 어떻게 빌리셨어요?

다른 분들이 우리 집회가 열리기 전에 자유발언대 같은 걸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마이크와 앰프를 빌렸어요. 그다음 날부터는 마이크와 앰프가 아무도 없어서 알음알음 다른 시민단체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그랬어요. 근데 업체 통해 빌리는 건 비싸더라고요. 두 번 정도 빌릴 돈이면 사겠던데……. 언제 집회를 개최할 줄 알고 이걸 사두겠어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돈 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자유발언대 할 때는 후원 전혀 안 받았어요. 나중에 큰 집회를 하게 되면서 후원계좌를 띄우고 후원을 받았죠. 집회를 같이 여시는 분들에게도 분담금 받고, 돈을 모아 먼저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받자고. 그런데 분담금 받기 전에 1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모였어요. 싸게 집회를 진행했더니 100만 원 안쪽에서 다 되던데요? 분담금 받을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었죠.

후원 요청서는 어떻게 쓰셨어요?

제가 기획을 쓰고 제 친구가 제안서를 쓰고.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요. '나도 도와주고 싶다'는 시민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책모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시민단체 회원들이어서 처음엔 그 단체 회원에게 메일을 뿌려서 참석을 요청했죠. 처음엔 다른 시민단체 분들도 오셔서 다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소속이 있는 분들은 같이 일을 하기 어렵고, 소속이 없는 분들도 참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페미니즘에 관심 있고 강남역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더 친해지면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옥외광고물 같은 거 마음대로 뿌려도 돼요?
저도 피켓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요.

저희는 정신이 없어서 프린트를 못하고 흰 천에 그냥 썼어요. 그걸 양쪽 끝에서 들고 건물 입구 계단에 서 있으니까 경비아저씨가 와서 여기는 사유지라서 여기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듣다 보니 겁이 나네요. 이거 정말 할 만한 걸까요?,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해보시면 괜찮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희 분위기는요, 첫날엔 다들 울었고 추모가 중심이었고, 둘째 날에는 다들 화가 나기 시작했고, 세 번째 날에는 남자들이 와서 "남자 여자 모두 혐오하지 마라" 이러고 있었고……. 네 번째 날부터는 사람이 줄어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내 편'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빠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추모냐, 추모를 빙자한 남자 혐오 아니냐?"는 공격이 엄청 많았어요. 피해자가 엄연히 계시는데 논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었고, 유가족과 피해자 남자 친구 분이 힘드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재정비해서 큰 판을 준비하게 됐어요. 하다 보면 분위기 따라 방향도 바뀌고,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남자 혐오 아니냐' 그런 식으로 훼방 놓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회 사흘째는 어떤 남자분이 엄청 적대적인 시선으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게 생각나요. 찍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내 카메라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어떤 중년 여자분이 앞으로 쓱 오셔서 카메라를 가려줬어요. 그때 '이런 게 연대 아닐까'하고 울컥했어요. 현장에서는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거나 모른 척 쓱 가리는 식으로 최대한 잡음 없이 조용히 대응했어요. 온라인 댓글은 대응하지 않고 그냥 삭제 요청했고요.

돌발 상황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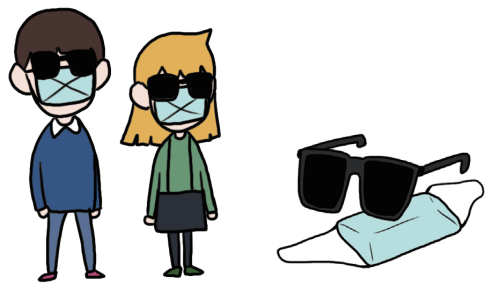
홍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발언권을 드렸던 분이 유명한 일베 여성 유저였어요. 그분이 "여자들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자고 마무리했어요. 때리려는 사람도 있었네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도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게 됐어요.

하신 뒤 기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엄청 걱정돼요.

현장의 중요성이라는 걸 막연하게만 알았는데 그때 그 장소에 매일 나간 사람, 매일매일 분위기의 변화 같은 걸 몸소 느꼈어요. 그 사건이 한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등을 조금 더 눈여겨봤던 경험을 갖게 된 게 의미 있죠. 현장에서 느끼게 된 감정들, 그 집단적인 감정들이 아직까지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를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집이나 회사에 존재했던 페미니스트 각자의 역할이 모여서 사회적 변화를 만들었던 것뿐이죠. 다만 페미니즘 문제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얼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집회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후원계좌로 들어온 돈을 영수증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다른 단체들이랑 공동 주최해서 모아놓은 돈들이 있어서 자꾸 섞여서 고생했어요. 좀 다른 느낌이지만 같이 고생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많이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는 분들의 노동이 묻히거나 소외당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처음 집회를 생각하고 있는 저한테 혹시 따끔한 일침이나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집회를 준비할 때 제가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분들을 제가 불러서 제안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작게는 무대를 세울 수 있는 철골구조물 같은 것도 전혀 몰랐고 현수막 사이즈도 모르고 디자인도 전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지만 '한국 페미니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회'였다고 생각해요. 90년대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이 '어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계기였어요.

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요. 처음 보는 단체였을텐데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 요청도 받아주더라고요. 나중에 기억했을 때 절대 후회되지 않으니 자신을 믿고 우주의 기운을 모아봐요. ㅋㅋ

Vol 2. 퍼포먼스를 해보셨던 분도 찾았다!

나영 씨는 이번엔 페이스북으로 눈을 돌렸다. 페이스북에도 여러 '시민영웅'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나영 씨는, 집회·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던 '시민영웅'을 발견했다. 늘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만 봤던 홍승희 씨. 나영 씨는 조심스럽게 '페이스북 메시지' 버튼을 클릭했다.

매일 페이스북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처음 정치적 의사 표현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술가라고 불리고 싶어요. 22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글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나 느낌들을 추상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지요. 본격적으로 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이명박 정권 말, 박근혜 정권 초기쯤이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늘 활동, 운동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18세에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은 많았어요.

거리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인 거리 퍼포먼스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그림 그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뭔가 다 부수고 싶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요.

화제가 되었던 퍼포먼스들은 미리 계획을 했던 거예요?

효녀연합은 어버이연합이 온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어버이라는 개념에 대응하는 퍼포먼스를 고민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효녀'라고 작명한 것을 후회하진 않지만 이게 이렇게 큰 반향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더니 단체가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시청광장 플래쉬몹을 제안하기도 했죠.

그렇게 효녀연합과 홍승희라는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응원도, 공격도 많이 받으셨죠.

'청와대는 너의 집이 아니고' 퍼포먼스를 했을 때부터 '시위녀'라고 불리며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공격들이 시작됐지요. '개념녀', '시위녀'라고 불리면서 화도 났지만 효녀연합이 오히려 저를 성장 시켰다고 생각해요. 제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대상화시켜 왔다는 것을 느끼고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뭐만 하면 '관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외모에 대한 칭찬을 가장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무서워요.

여러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전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별로 없었죠. 그런 사정을 아시는 주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거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후원계좌를 열었죠. 모인 돈은 퍼포먼스에 필요한 꽃이나 도구를 사는 일에 썼지요. 대부분 활동에 소비됐어요.

재판도 받으셨잖아요. 벌금형도 선고받고요.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료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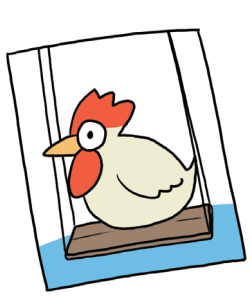
제가 원래 크라우드 펀딩, SNS, 온라인 등에 관심이 많았어요. 벌금 마련과 활동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 열었죠.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 얼마 전 재판 최후변론 때, 거기 후원해 주시면서 남겨주신 글들을 다 읽었지요.

언니가 쓴 글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지요?

언니 글 이후, 사람들이 '칭찬으로 한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대의를 생각하라', '받아들이고 노력하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를 비롯해서 여성들을 혐오하는 글들이 워낙 많아서 페이스북 본사와 페이스북 코리아에도 신고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무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몰랐고요.

경찰이나 지나가는 시민들이 방해를 할 때도 많으셨죠.

전 퍼포먼스를 할 때, 경찰이 방해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해요. 경찰이 오면, 순간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거나 분필을 꺼내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그래요. 서울시나 구청 직원이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국회 앞에 박스 집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경찰이 뭐라고 해서 집이 없어서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중에는 구청 직원이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해서 집이 없어서 여기서 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호통치고 그러시면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공감하며 대화가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끝까지 자기 말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퍼포먼스를 할 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잖아요. 언론에 연락은 어떻게 해요?

다른 퍼포먼스들은 일부러 언론에 연락을 한 적은 없어요. 즉흥적인 것도 많았고. 그런데 그래피티 퍼포먼스를 할 때는 알고 지내던 기자님 한 분을 미리 연락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는 했었어요. 사실 저는 단체들이 기자들에게 취재 요청서를 보내고 그런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동안 활동을 돌아보면 어때요?

재밌고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도 생각해요. 우리만의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나갈 때는 처음에는 쑥스럽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거리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다들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집회에서는 퍼포먼스를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재미있고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죠. 제 삶을 데리고 가는 일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는 어떤 거였어요?

2015년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때 소요 문화제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복 입고 무당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클럽보다 저는 더 재미있었어요. 법원에 가서 재판 받고 하는 것도 다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이 정권의 문제를 알리고 드러내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광장이 열렸는데 다들 자기의 공간에서 자기의 표현을 잘 하면 좋겠어요. 광장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04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이만하면 사례도 충분히 수집했고 경험자들의 조언도 충분히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할지를 알아봐야 한다. 나영 씨는 다이어리를 펼쳐 들었다. 그리고 다이어리의 가장 위쪽에 붉은색의 큰 글씨로 '노동자 SNS 사찰 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를 썼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목표를 설정한 것만 해도 이미 절반은 이룬 것 같다.

나영 씨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휴대폰에는 인터넷 검색, '평범한 시민영웅'들로부터 구한 전문가들의 연락처가 빼곡이 담겨 있었다. 전문가들은 나영 씨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실무적인 문제를 친절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그래도 크게 심호흡부터 한번. 나영 씨는 휴대폰 화면에 있는 '통화' 버튼을 꾸욱 눌렀다.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모아야 할까?

Q. 나영 씨는 우선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게 급선무라고 느꼈다.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1인 시위'도 좋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A. 소셜 네트워크(SNS)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미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다면 간단한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주장'을 알릴 수 있다.

개인 계정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뜻이 맞는 친구 몇 명과 함께 트위터 계정으로 '연대'를 하는 방법도 좋다. 같은 주장과 같은 프로필 사진을 달고 있는 계정들이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면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게 된다. 트위터의 경우 모든 주장이 타임라인을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주장을 지속적으로 '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장이 흘러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좋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나와 친구들의 주장이 차곡차곡 아카이빙 된다. 트위터처럼 곧바로 흘러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사람의 시야에 머무르게 된다. 검색이 잘 되게 하려면 트위터 계정명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의 제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트위터 계정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담는 '정보' 역시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핵심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주장을 지속성 있게 남겨두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개설해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와 연동하자. 한번 이슈화된 후 타임라인 아래로 흘러가버리는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와는 달리 블로그 글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의사를 전달하게 된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 있는 포털사이트 카페,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그룹 등을 통해서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웹 포스터 등에 기본 정보와 주장을 담아도 좋다. 웹 포스터에도 주장은 간결하고 명확히.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사이트 카페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된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임이나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면 한겨레 등의 '생활광고' 란을 이용할 수 있다. 5만 원 안팎의 돈으로 주제, 제목과 일시, 장소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장을 간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가독성이 낮고 빠른 속도로 읽게 되는 인터넷 게시글의 특성상 글을 장황하게 써서는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빼먹어서는 절대, 절대 안 된다.

구글독스? 아바즈? 그게 뭐지?

Q. 나영 씨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만을 통한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서명운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또 지지를 받고 싶어 졌다. 오프라인에서도 서명운동을 받을 수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도 활발하다고 한다.

A.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아바즈(www.avaaz.org)'는 자신의 주장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2017년 2월 현재 총 194개국 4,418만 여 명의 회원들이 아바즈에 가입돼 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아바즈에 올라오는 이슈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여 개의 '눈'도 있다.

아바즈를 통한 청원은 간단하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곧바로 '청원서 시작하기'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다. 청원 내용을 전달할 상대방, 청원 내용, 왜 이 청원이 필요한지 등을 기재해서 청원을 시작할 수 있다.

국내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면 한글 외에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함께 올리는 것도 좋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간단하게, 그리고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 상황에 왜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할 인력이 되지 않는다면 구글독스(Google Docs)를 이용한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구글독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문지' 페이지를 개설한다.

내가 하려는 주장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적은 후 방문자들의 이름, 주소(시군구까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항목도 개설한다. 받은 서명이 각종 유관 기관에서의 '청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서명자의 이름,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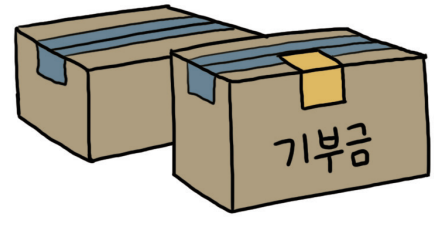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려고 한다, 법률적 문제는 없을까?

Q. 현수막 게재, 유인물 배포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나영 씨는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으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부를 받고 신고,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며 덜컥 겁이 났다. 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A. 후원을 받게 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이 적용된다. 이 법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된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요청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이 정하고 있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원·모금받는 금품의 액수가 1,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이면 후원·모금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별첨자료1]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참조, 64p). 액수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등록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다.

그런데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면, 모은 금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선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 등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만 가능하다. 영리 또는 정치나 종교활동이어서는 안 된다. 후원·모금을 받는 장소에 대한 제한도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 후원·모금을 하는 사람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또, 후원·모금 상황, 받은 금품의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나 서류를 작성해둬야 한다.



후원·모금된 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사용을 모두 끝낸 때에는 후원·모금 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을 안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기부금품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접수 사실을 거짓으로 적거나 후원·모금 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서류를 갖춰두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후원·모금을 해도 역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을 후원·모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대부분 소규모 집회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기준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후원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

Q. 후원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알아봤지만, 막상 후원을 받자니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해졌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크라우드 펀딩'이란 것이 있다고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

A.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소셜 펀치', 다음의 '스토리 펀딩', 그리고 텀블벅의 'Tumblbug' 등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는 기부금품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수수료를 내거나 '리워드'를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신경을 써야 한다.

'소셜 펀치(social funch)'는 환경, 여성, 인권, 빈민, 노동 등 민중운동, 인권사회운동 등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 캠페인, 프로젝트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펀딩 프로젝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는 3%로 크라우드 펀딩 중에 가장 적다. 펀딩 참여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도 펀딩 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목표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행정자치부나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펀딩 제안자가 직접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토리 펀딩'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펀딩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이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다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다. 기고나 기사, 대담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연재하면서 목표하는 프로젝트를 알리고 후원금을 모은다. 모금 상한액은 제한이 없고, 목표액을 다 채우지 못해도 후원금

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리워드'라는 이름으로 후원자들에게 무언가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점, 수수료가 10% 이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Tumblbug'은 창작자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책을 출판한다거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음악인들이 모여 음반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창작 방식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기간은 모두 60일 이내이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모든 후원은 '이체 예정'으로 분류된다. 기간 만료 시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면 후원금이 이체되며,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후원금이 이체되지 않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액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스토리 펀딩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리워드'가 있어야 하며 리워드는 꼭 집행돼야 한다.

현수막 게재·유인물 배포,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Q. 근처 인쇄소에 맡겼던 현수막과 유인물이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나영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인 사람들에게 현수막을 발송하고 아파트에 내걸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 거리로 나서서 유인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A. 현수막, 유인물과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9호가 문제 될 수 있다. 두 법 모두 공통적으로 '광고물'을 규제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광고물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업적인 물건을 말한다. 법이 만들어진 목적도, 상업적이거나 선정적인 광고물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을 막고 주변 경관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위 두 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두 법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은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예외규정이 붙어 있다.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가 정치인 풍자 그림을 옥상이나 길거리에서 뿌리고 벽에 붙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물은 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므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림 등은 모두 위 두 법률이 규제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현수막이나 유인물 등은 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 의사표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되는 것이고 위 두 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이 맞다. 만일 구청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온다면 위에서 말한 예외 규정을 언급하거나, 헌법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당당히 말하면 된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도 한 방법.

집회·시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

Q.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자 나영 씨는 이제 집회를 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영 씨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찰서에 가 본 적이 없어 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 또 중복신고가 돼 있다는 이유로, 교통 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된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다.

A. 집회·시위 날로부터 720시간(30일) 전~48시간(2일) 전,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집회신고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별지 1호 서식'으로 첨부돼 있다([별첨자료2]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참조, 65p). 공공장소에 집회·시위를 하려고 한다면 공물관리청, 시설주(관리책임자)의 '시설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는 없으며 신고서에 적혀 있는 주최자가 경찰서 민원실, 정보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주최자가 아닌 연락책임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서를 몇 차례 오가지 않으려면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좋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찰이 멋대로 판단해 집회신고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또, 경찰이 시간이나 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같은 시간, 장소에 집회 신고가 돼 있는 경우를 조정하는 것 외에 그런 식으로 간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접수 자체를 계속 거부한다면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진 자료 등을 남겨두는 게 좋다.

다만 집회신고서의 형식적인 부분이 일부 부족하면 경찰이 24시간 내에 집회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통고하게 돼 있다. 이 경우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신고하면 된다.

문제는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거나 제한통고를 하는 경우다. 금지통고는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폭행 등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 명백한 집회시위에 해당할 때 △금지되는 야간 옥외시위일 때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등 100미터 이내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집회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때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중복집회, 교통소통, 신고서 보완 거부를 이유로도 금지·제한 통고를 할 수 있어 집회 금지 사유가 지나치게 넓다.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법원도 미신고 집회거나 금지 통고된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산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가 중복된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있을 때 예전에는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무조건 금지했다. 2016년 법 개정 이후 경찰서장은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는 등으로 서로 방해되지 않고 개최되도록 권유하는 등 노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집회 금지, 제한 통고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때 개최일에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려면 신속하게 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원에 신속한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하여 법원 심문기일을 거친 후 집회 일시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법적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집회·시위에 필요한 물품은 어디서?

Q. 막상 집회를 열려고 하니 마이크, 앰프 등 물품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사도 한 번 진행해본 적이 없던 나영 씨는 막막함을 느낀다. 어디서 어떻게 물건을 빌려야 하는 걸까.

A.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메가폰, 관광가이드들이 쓰는 목걸이용 작은 휴대용 앰프 등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집회를 정기적으로 오래 하게 된다면 충전식 휴대용 앰프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지만 당장 몇 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을 터. 이럴 경우 렌탈 업체 등을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렌탈 업체를 검색하면 "와, 이런 물건도 빌려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

어떤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예상 참가 인원 수 등을 고려해 잘 선택하면 된다.

내가 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 신문과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Q. 나영 씨는 이번 집회를 포함해 현수막 설치, 유인물 배포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페이스북 페이지로만 주장을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제보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보를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했다.

A. 일단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게 되면 집회·시위 신고 내용은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모두 전달된다. 기자들은 집회·시위 주최자, 제목을 보고 집회 내용을 추측해 취재 여부를 결정한다.

집회·시위의 내용을 좀 더 분명히 전달하고 싶으면, 보도자료를 미리 작성해 배포하는 것이 제일 좋다. 보도자료 작성은 장황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를 제일 먼저 쓰고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주최자 등을 써주면 된다. 만들어진 보도자료는 모든 기사 아래에 붙어 있는 기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대부분의 집회·시위 취재는 사회부 기자들이 한다. '경찰서'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이 사회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정 정부부처, 혹은 특정 기업과 관련된 집회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정부부처나 기업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도 보도자료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업' 등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면 담당 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집회·시위를 여러 번 열거나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도 효율적이다.

집회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건 뭘까?

Q. 신고를 해놓았지만 집회 당일 이런저런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관련 규정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 경찰은 신고를 수리하면서도 나영 씨에게 신고한 장소와 시간을 어기면 체포될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A. 신고한 장소, 시간을 어긴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도 없다. 법원은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집시법은 집회·시위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규정이다 보니 헌재는 두 번씩이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적어도 모든 시간대의 집회, 24시 이전의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4시 이후의 시위에 대해 경찰은 금지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법원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집시법은 '장소'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다.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무조건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외교기관, 외교사절 숙소에서도 집회·시위가 금지되지만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아니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회·시위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은 규정이다.

또 집시법은 일정한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도 금지한다. 소음 측정 결과 기준을 넘는다면 기준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확성기 사용 중지, 일시보관을 명령하기도 한다.

해산명령과 관련된 규정도 있다. 경찰서장은 집시법에 위반한 집회의 경우 ①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하고 ②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요청하고 ③참가자들에게 3회 이상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세 번 이상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경찰이 직접 해산하거나 '해산명령 불응죄'로 연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집시법을 위반한 집회라고 경찰이 당연히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명령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자발적인 종결 선언, 자진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산해야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한다.

합법 집회인데 왜 경찰이 사진을 찍지?

Q. 집회를 어렵게 열었지만 나영 씨는 집회 현장 주변에서 수상쩍은 남자 3명을 발견했다. 남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었다. 화가 난 다른 집회 참가자가 신원을 물어보니 경찰이라고 한다. 합법 집회인데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걸까?

A. 경찰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만들어 현장 채증을 강화하고 있다.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지만, 채증 사진을 들이대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한다는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

경찰은 '수사를 위한 채증'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 즉,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하는 채증, 특히 합법적인 집회나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채증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적이다. 경찰은 법률이 아니라 '직무규범'에 불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를 근거로 채증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채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경찰의 채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경찰을 만난다면 "범죄 현장도 아니고 폭력 행위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사진을 찍느냐?"라고 일단 항의를 해야 한다. 경찰의 직함과 이름을 물어도 좋다. 당사자나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그 경찰의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다

Q. 이번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욕설을 시작하고 사진을 찍는다. 집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아무래도 나영 씨가 말하는 '여성혐오 반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저쪽에서는 보수 단체 회원들이 나타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같이 욕을 하고 싶지만, 정말 욕을 해도 괜찮을까.

A. 정당한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상대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맞대응을 하느라 힘을 빼기보다는 무대응을 권장한다. 만일 말싸움이 시작됐다면 흥분하지 말고 단호한 어투로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다. 이해나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1인 시위, 신고된 집회·시위에 방해꾼들이 나타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도 경찰이 있겠지만, 112 신고를 하면 관할서에서 다른 경찰들도 현장에 온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방해를 하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을 해 두자. 신고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임무이니 망설일 필요가 없다.

‘사진 촬영 금지’인데 기자들이 함부로 사진을 찍는다

Q. 기자들도 나타났다. 언론에 알린 만큼 환영의 인사를 하고 싶지만 기자들이 자꾸 사진을 찍는다. 직장에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무서운 시민들이 있어 ‘사진 촬영 금지’를 내걸었지만,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A. 일단 기자들에게 ‘사진 촬영 금지’를 전제로 한 집회·시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자. 사전에 ‘사진 촬영 금지’를 듣지 못하고 취재를 나온 기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촬영을 시도한다면, 일단 얼굴을 가리자. 현장에 나온 경찰에게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촬영 기자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분명히 요청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 모든 과정을 녹음, 촬영해두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자가 건넨 명함이 가짜 명함이 아니라면 기자 개인 전화번호 외에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의 편집국 전화번호도 적혀 있을 것이다. 이곳에 전화해 문제를 일으킨 기자의 이름을 밝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항의를 하자. 언론 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보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나의 주장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려면

Q. 나영 씨는 자신의 주장을 주장으로만 남기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필요한 것은 국회를 통한 입법화!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 법은 어떻게 만드는지 난감하다.

A.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든다. 법안은 정부나 국회의원 개인이 발의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이 생긴다.

만들고 싶은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중 한 사람을 정하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담당하는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연락을 한 뒤 보좌관을 만나거나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알린다.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회관에서 파는 국회수첩에 각 의원실의 상세한 정보가 있다. 국회의원실에는 민원, 방문자가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입법청원이라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입법청원 역시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국회의원과 협업이 필요하다.

outro

‘집회 초보’ 나영 씨, 정치적 의사 표현의 첫 발을 떼다

나영 씨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막막했던 처음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영 씨는 여러 사람의 조언에 따라 페이스북 페이지부터 개설하기로 했다. 뜻이 맞는 사람들도 모아야 한다. 나영 씨는 트위터에서 만났던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냈다. 답변을 기다리며 나영 씨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나영 씨는 좀 전에 다이어리 제일 위쪽에 썼던 '노동자 SNS 사찰 금지법 제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다시 한번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이제부터는 로드맵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나가야 한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든 후에는 아바즈 청원을 받을까 구글 독스로 서명을 받을까. 후원을 받는 것도 문제고, 유인물을 만드는 것도 문제다. '집회·시위'만 생각했던 나영 씨였지만 생각보다도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즐거워졌다.

나영 씨는 '노동자 SNS 사찰 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여러 차례 그렸다.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나영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별첨 자료 1

[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모집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⑤ 명칭		⑥ 연락처	
	⑦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⑧ 대표자 성명		⑨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 대표자 주소		⑪ 대표자 연락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귀하

< 등록(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	수수료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7. 그 밖의 사항	없음

210mm × mm
(신문용지 54g/㎡)

별첨 자료 2

[제 호]

옥외 집회(시위·행진) 신고서

① 집회(시위·행진) 명칭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 구역이 되어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		
② 개최 목적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장소가 된 화단 옆과 앞의 장소(아래 집회신고장소)도 집회의 자류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함임		
③ 개최 일시		2013. 7. 15(월)~7. 22(월)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2013. 7. 24(수) ~ 7. 26(금) 각 일의 17:00~21:00		
④개최 장소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 단 대한문 정문 쪽은 폭 3M(별지도면 참고)		
⑤ 주최자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 3		
	성명 혹은 단체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	고유번호	
			직업	
⑥ 주관자	주소	상동		
	성명	상동	주민번호	
			직업	
⑦ 주최단체 대표자	주소	상동		
	성명	권 ○○	주민번호	600325-
			직업	변호사
⑧ 연락 책임자	주소	상동		
	성명	이 ○○	주민번호	870412-
			직업	회사원
⑨ 질서 유지인		김 ○○ 외 2인		
⑩ 연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성명	권 ○○	주민번호	600325-
			직업	변호사
	연제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및 경찰력 남용 규탄,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 등		
⑪ 참가 예정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수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⑫ 참가 정 인원		30여 명		
⑬ 시위(행진) 방법		없음		
⑭ 시위(행진)진로		없음		
⑮ 참고 사항		없음		

2013년 7월 11일
신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인)
남대문경찰서 귀하

옥외 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추가 제출서류 ① 집회시위 개요**

(진행순서) 17:00~21:00 강연 및 집회

(준 비 물)

1. 플래카드 1개
   규격 : 0.9m x 3m
   내용 :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한마당
2. 피켓 : 있음
3. 머리띠 : 있음
4.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 : 있음
5. 유인물 : 있음.
6. 분향물품 : 있음 (분향로, 촛불, 향, 돗자리, 간이 탁자, 24명의 영정 사진)
7. 스크린 또는 이동식 화이트보드 : 있음.
8. 빔프로젝터 : 있음.
9. 선전용 판넬 : 있음.
10. 간이 플라스틱 탁자 : 3~5개
11. 간이 플라스틱 의자 : 20~30개

옥외 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추가제출서류 ② 질서유지인 명단**

질서유지인 총 3명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1	김 ○○	81100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2	김 ○○	790628-	상동	
3	류 ○○	850325-	상동	
4				
5				
6				
7				
8				

옥외 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추가제출서류 ③ 집회장소 관련 도면**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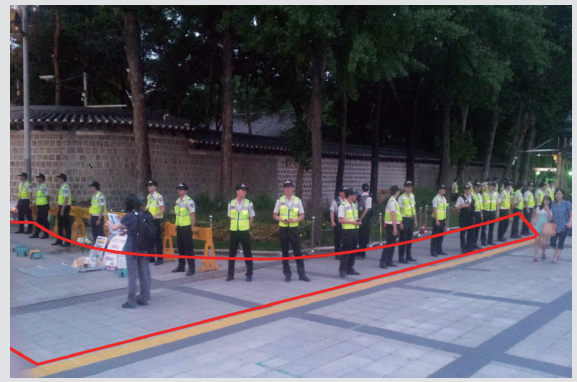


그림2

* 화단 경계로부터 폭 약1.5M 인도 부분(단, 대한문 정문 방향은 폭 약3M) ([그림 1]과 [그림 2]에 표시된 빨간색 테두리 안쪽 부분으로서, 각 그림의 왼쪽 부분에 빨간색 선이 서로 만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그 연장선의 교착점을 꼭지점으로 한 부분의 내부 부분)

* 화단 경계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 블록은 집회장소에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 통행시 통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

* 이 사건 집회는 집회 참가 변호사들 및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장소 내부에 앉거나 서 있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임

* 앰프, 간이탁자, 스크린 등 집회물품은 주로 대한문 정문 쪽(폭 약 3M)에서 사용할 예정임

시민을 위한 집회·시위 안내서

말 좀 해도 될까요?

발행인 정연순 | **발행일** 2017년 4월 15일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522-7284 | **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www.minbyun.or.kr | **이메일** admin@minbyun.or.kr
지은이 김수완 | **감수** 김용민 | **삽화** 김빛내리 | **디자인** (주)인디엔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보공유의 아름다운 정신을 따릅니다.